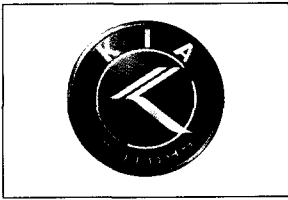


기아차 전자승객 세이프

기아자동차(www.kia.co.kr)는 지난 1월말 신형 밀레니엄 카렌스에 처음 적용한 브랜드(BI)로고를 앞으로 생산하는 새 차종과 변형 차종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새 로고는 기아의 영문첫자 "K" 에다 무한한 우주를 상징하는 원과 세계를 향해 비약하는 봉황의 날개형상을 조합했다. 기아는 새로운 로고를 차종에 따라 전면과 후면부, 휠과 C필라(뒷기둥) 하단, 인테리어 등에 부착할 예정이다.



쌍용차 전자승객 전용 엠블럼

쌍용자동차는 쌍용과 대우 엠블럼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해 오던 차량엠블럼을 24일부터 쌍용 엠블럼으로 통일해 출고한다고 밝혔다. 쌍용 엠블럼은 쌍용자동차의 기업이념인 고객만족 최고품질 화합전진을 상징하는 3개 원을 하나의 고리로 묶어 형상화한 것이다. 체어맨, 무쏘, 코란도, 이스타나등 쌍용의 전



생산차종에 이 엠블럼을 부착한다.

만도, GM과 배틀 플랫폼 차량 1억4000만달러 수출

만도는 미국 GM사로부터 브레이크 1억 500만달러, 조향장치 3,650달러등 모두 1억4000만달러 어치의 자동차부품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수주한 브레이크 장치는 리어 캘리퍼로 2002년 1월부터 만도 평택공장에서 매년 53만개를 생산, 6년동안 미국 오하이주 GM사 모레인 공장에 납품하게 된다. 리어 캘리퍼는 7인승 레저용 차량인 SUV에 장착될 예정이다. 조향장치인 인터미디에이트 샤프트는 2003년 1월부터 문막공장에서 매년 21만개를 5년간 생산, GM사의 미국 미주리주 웬츠빌 공장과 캔터키주 볼링 그린공장에 공급기로 했다. 이 제품은 사바나 밴, 익스프레스 밴, 카디 에보크, 코르베트등의 차량에 장착된다.

SJM, Bellow Ass'y, EGR Pipe 380억 원 수출

Bellow Ass'y, EGR Pipe Ass'y를 생산하고 있는 SJM이 미국 포드자동차로부터 380억원 규모의 'CD132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몬데오 신차종 개발과제로 SJM의 남아공 현지법인인 SJM플렉스 SA사에서 향후 5년간 배기계 부품인 벨로우즈를 공급하게 된다. 이 수주에 따라 포드 유럽법인에 대한 SJM의 부품공급 점유율은 40%에서 70%로 늘어나게 된다.

SJM은 지난해까지 포드·GM·폴크스바겐등으로부터 2,5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수주, 부품을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SJM은 현재 말레이시아·네덜란드·남아공·독일 등지에 법인을 설립,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삼진, 유니크 로 상용화

Valve, Wire Harness, Auto Clock, Sensor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적고가 회사명을 유니크(UNICK)로 바꾸고 경영정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새이름 유니크는 유일하다는 의미의 Uni와 깨끗하다는 Clean, 한국을 뜻하는 Korea의 합성어로 국내 최고의 환경친화적 부품생산업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적고는 신제품을 잇달아 개발, 국내 완성차메이커에 대한 부품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등 경영수지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정밀 크러스터와 신세대 감각의 디지털 계기판을 이미 선보여 앞으로 등장할 신차에 계속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정공, 500억원 규모 스마트에어백 수주

현대정공은 현대자동차로부터 베르나 페이스리프트 모델(LC)과 아반떼 후속모델(XD)의 북미수출용 차량에 장착될 "스마트에어백"을 500억원에 수주, 개발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에어백은 충돌시 무조건 에어백이 팽창하는 기존

에어백과는 달리 운전자와 승객의 체격, 앉은 자세, 시트벨트 착용여부, 충돌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팽창 크기와 속도가 자동조절되는 차세대 에어백으로 세계적으로 미개발 상태다. 현대정공은 이에 따라 세계 최첨단 에어백기술을 갖춘 미국의 브리드사와 공동으로 개발팀을 구성, 2002년께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계획이다. 현대정공은 국내의 경우 에어백 부착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에는 현재 2,000억 원 규모의 에어백시장이 5,000억 원으로 2배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금아인터내쇼날, 독일 Opel사에 호스 조립제품 공급

금아인터내쇼날은 자동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 Power Steering 고압·저압호스 조립제품에 대해 4년간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다. 특히 이번 수출은 제작사양이나, Noise문제등 까다로운 Item을 금아인터내쇼날의 특허기술에 의해 외국 유명 자동차에 조립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그 기대효과가 크다. 금아의 제품은 GM의 Opel자동차에 World Car의 하나인 Astra 차종에 적용하는 것으로 독일의 TRW에서 개발한 EPHS Power Steering System에 모듈화 제품으로 Opel 자동차에 공급되고 있다.

금아의 제품은 TRW와 3년간 공동으로 개발하여 Opel 자동차의 승인을 얻어 2000년 4월부터 본격 생

산, 수출하고 있다. 현재는 독일의 기존 업체와 2원화 되어 있으나, 현지 업체보다 금아제품이 더욱 좋은 품질을 인정받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욱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GM Opel사의 Astra차종은 연간 100만대 생산 계획이며, 금아는 30%~50%의 수량을 4년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수준으로 생산시 금아는 연간 300만~500만달러의 수출 매출 신장이 기대되며, 기타지역의 TRW(미국, 스페인, 호주등)의 신규 Item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여 높은 수출 증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강원산업, 세미오토시스템 개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자동차용 세미오토시스템을 국내 중소기업인 명진산업이 자체기술로 개발해 수입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오토시스템은 지난 98년부터 현대차와 대우차등이 경차에 장착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졌으나 이는 전량 프랑스 발레오사등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도입한 수입품이었다. 자체기술로 세미오토시스템인 '슈퍼클러치'를 개발한 명진산업은 지난 95년에 창립, 클립과 로드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슈퍼클러치는 수동변속기 차량의 문제점인 변속시 클러치 페달과 제어를 운전자대신 할 수 있는 활동장치를 자동차의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와

오페라실린더 사이에 장착하고 각종 센서와 스위치를 통해 주행데이터를 입력받아 전자제어장치(ECU)가 클러치디스크를 제어하도록 만든 세미오토시스템이다. 즉, 수동변속기를 클러치페달 조작없이 변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슈퍼클러치'의 장점은 기존의 유럽제품이 차량생산과정에서만 장착이 가능한 반면 이 제품은 생산과정에서 뿐만아니라 수동변속기로 생산된 1톤 트럭 이하의 어떤 차종에도 1시간내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제품은 클러치페달이 아예 없어 수동변속이 불가능한데 비해 슈퍼클러치는 수동과 세미오토시스템을 운전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 차부품업체, AS용부품 시장 확대

4월안에 자동차 부품제조업체가 직접 AS용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4월18일 발표한 '자동차산업육성 종합대책'에서 부품업체의 자율판매를 제약해 왔던 표준외주거래계약서 조항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의 승인이 떨어지면 부품업체의 AS용부품 직접 판매가 가능케 된다. 산자부는 일단 수요가 많은 70개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확대를 추진하고 이달중 부품유통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간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예정이다.

(강우 편집위원 : wkang@ns.katech.re.kr)